

 <b>인천광역시</b>	<b>보도자료</b>		 <b>경 재외동포청 추</b> <b>인천설치 확정!</b>
	배포일자	2023년 5월 25일(목) 총 3매	
담당부서 환경기후정책과	담당자	• 환경기후정책팀장 손혜원 ☎440-3511 • 담당자 조운정 ☎440-351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일시	14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청라자원환경센터서 자원순환시설 정책 공유

- 시, 군·구, 환경공단 직원 100여 명 참석, '자원순환시설 정책간담회' 개최 -
- 자원순환 시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세우는 계기 마련 위해 -

인천시 환경담당 공무원 150여 명이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송도와 청라에 있는 자원환경센터를 견학한 데 이어, 자원순환시설 정책 간담회 개최해 다시 한번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25일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내 청라자원환경센터에서 '자원순환시설 정책 공유를 위한 환경분야 정책 간담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군·구, 인천환경공단 등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1월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따라서 전국 각 지역은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 현재 인천시도 4대 광역으로 나눠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거나 현대화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자원환경센터가 신설되는 곳에 공원과 주민 편의시설은 물론 주민지원 사업비 등을 차등 적용하고, 각종 인센티브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는 자원순환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무조건 안 된다는 편견(넘비현상 : NIMBY, Not In My BackYard)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과 오해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인천시 공직자들부터 환경기초시설이 지역의 관광명소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자원순환 체험 공간인 청라자원환경센터에서 개최됐다.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청라자원환경센터는 축구장(7,140㎡) 약 22개 크기인, 총 부지 15만 6천여㎡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음식물 사료화시설 등(총면적 대비, 7.3% 수준)을 갖추고 있다. 소각처리후 발생한 열을 활용한 자생식물원과 온실, 갯들, 연못 등 생태공원, 천연 잔디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등의 체육시설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와 힐링공간으로 사계절 제공되고 있다. 연간 이용자가 약 10만 명에 이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한국화학안전협회 박수영 교수와 인천시 김달호 자원순

환과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했으며, 김인수 시 환경국장이 주재한 환경정책 간담회도 열렸다.

부대행사로 소각시설과 함께 친환경시설로 조성된 청라생태공원을 둘러보고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환경 퀴즈 골든벨 행사로 간담회는 마무리 됐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자원순환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는 기회로 확대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확산시켜 나가겠다” 며, “앞으로 건립될 자원순환센터는 환경에 무해하고 시민건강에 안전하도록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기피시설이 아닌 미래를 충분히 담아내는 기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5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